



- 1 在日僑胞의 救靈
- 2 祖国統一의 實現
- 3 韓・日兩國의 和解

총력을 뭉쳐서 용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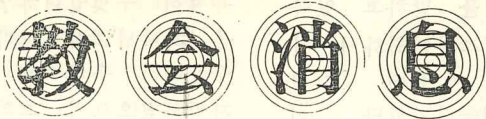
우리 기독교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이다 우리 재일대한기독교회총회는 금년에 재일교포선교60주년을 맞이하여 과거를 회상하면서 앞을 전망하는 의미깊은 새해를 맞이했다 또 이 사실을 국내외 멀리 카나 다까지 널리 선포하고 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총회는 물론 총회 산하에 있는 각 교회는 평소에 가진 결심으로서 이 중대한 대업을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힘을 한곳에 뭉쳐야 할 것이다 디모데후서二、三-4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래와같은 세가지로 생각하고 고쳐 한다

1.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좋은 병사가 될려면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 이 고난에 봉착 할때는 용기가 필요할것이다 전진의용기가 없는 병사는 후퇴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다 후퇴의 길은 벌써 실패의 길이다 우리 기독교자가 다 예수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할것 같으면 우리대장 예수그리스도를 따라서 얻어 한곳에든지 그리스도만 보고 따라가야 할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평안하고 내게 유익이 있다고 할 때에는 예수를 따라 가다가 고통의길 불리의 길에 나왔을때 우리 주님만 보내고 나는 뒤로 물러서는 자가 되지 말것이다 이와같은 태도로서는 도저히우리가 부르짖는 선교60주년 앞으로 10년간의 70주년에 세운 모든 계획은 용두사미가 될것이다 심히 두려운 일이다 한번 우리가 목표를 세웠으면 전사의 각오로서 앞으로 용진 하여야 할것이다 불연이던 처음부터 이와같은 목표는 세우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자는 실행이 앞서야 할것이다

2. 좋은 병사가 될려고 할때는 의지가 굳어야 한다 일선에 출병한 군사

가 못하면 승전 하지 못할 것이다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기진 맥진 할때라도 출병시에 가진 그 굳은 의지는 잊지말것이다 만일에 처음에 가졌던 의지를 잊어버릴때는 벌써우리는 복음 선교 전선에서 뒤로 돌아선 병사이다 노아의 선교의 정신을 배우자는 것이다 120년이라는 긴 세월에 높은 산상에서 배를 모은다는 것과 모든 사람들의 비평과 그 굳은 의지 그는 참 용사이다 우리가 앞으로 10년간의 세운 모든 계획을 추진 할때에 처음에 가졌던 그 의지만 잊지않으면 성취 할것이다 그러나 도중에 그 뜻을 잊어버리면 모든 사업도 잊어버릴것이다

3. 좋은 병사가 될려면 희생의 정신이 필요하다 이 희생이라고 하는말 가운데는 넓은 범위의 말인 동시에 우리 기독교자는 다 우리의 대장 예수그리스도에게 병사로 뽑힌자이다 우리는 우리를 뽑은자의말을 기쁘시게 할려고 할때에 지식의 희생 지위의희생 재물의희생 시간의 그 희생 그외에도 여러가지희생이 있을것인데 이 희생이 같이 하기전에는 우리의 목표는 달성되지 못할것이며 따라서 선교 60주년 또는 70주년을 앞둔 모든 계획이 이루어 지지 못할것이다 그때에 우리는 입을 벌려서 세상을 향하여 외치지 못할것이다 —정인수 목사 平野教会—



소수 민족 문제 대책 위원회 발족

최근 일본교계에 소수 민족문제에 대한 관심과 그리스도인으로 이에대한 책임감이 논의되고 있던바 구 12월 26일 성탄절 바로다음날 NCC는 소수 민족 문제 대책위원회를 각 교파에 의뢰하여 제1회 위원회 설치는 작년 3월 고메바에서 열렸던『선교와 일치』에 관한 NCC주최회의에서 공동책임으로 확인된 것이다 문제를 발견하고 연구 하는것으로 끝나는 모임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갈려고 하는 의도로 설치된 위원회다 따라서 목사는 물론이고 크리스찬 재판관 국회의원 실업가를 포함한 강력하고 행동적인 위원회가 될것임으로 그 활동이 기대된다 처음 위원회에서는 재일한국인의 일반적인 문제가 우리측으로 의원이 된 오윤

태목사로 제시되었다 첫번 모임이어서 위원회 구성을 했을때 일본기독교단 의장 스즈키 마사히사 목사를 위원장으로 모시게 되었다 문제장 서기는 기독교단서기인 기무라 도모미 목사와 우리총회 총무 이인하 목사가 협력하여 책임을지게 되었다 차기에는 정월 26일에 한국인의 교육문제에 대한 발표를 이인하목사가 하게 되었다 일본교계가 재일 한국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두가지 생각 나는바 하나는 우리 총회가 과거 10년동안 NCC의 회원교회서 인내를 갖고 일본교회와 대화해온 성과고 둘째로는 한일 양국의 교회간의 교류를 통하여 자극된 것으로 본다 참고로 의원 가운데 저명한 분을 적는다면 일본성공회의 교토 마교도 주교

와 국회의원 가와가미 다미오씨 등이다

広島교회 사경회

広島교회 사경회는 1월2일부터 4일까지 신정 사경회를 했다 특별 강사로 반병섭목사님을 모시고 선교70주년을 향하는 교회와 신

도의 합일을 모색했다 새벽기도회는 연65명 공부시간에는 연150명 저녁집회에 연79명 참석 하였다 예년보다 공부시간이 많았다는 것과 새벽기도회에 청년들이 많이 출석한 것이 금년 사경회의 특색일 것이다

동방에 빛나는 신학의 전당

~서울에 있는 신학대학 소제~

李 鍾 聲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 하시기를 기도하오며 귀교회의 발전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교제가 1952년 8월에 미국을 향하여 여러분을 배회하여 온후 벌써 만 15년이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교제는 언제든지 여러분과 같이 즐겁게 지내던 옛날이 그리웠습니다 그러던중 지난 4월에 잠깐 동경과경도와 나고야와 하판만 방문하옵고 귀국할 수 밖에 없어서 더 섭섭한 마음급할 길이 없습니다 멀리않은 장래에 꼭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서 여러분이 교제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성원해 주시기를바라는 바입니다 교제는 1956년에 미국에서 귀국하여 동양에서 제일 큰 교회인 서울 영락교회의 부목사로 2년간서무했습니다 그후 연세대학교의 교수로 초빙받아 거기서 학생처장 및 교목실장을 겸임하면서 7년을 봉직하다가 작년 3월에 현재 봉사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신학대학의 교수겸 학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신학대학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평양신학교의 후진으로서 작년까지 259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그중 현재 1900명의 졸업생이 목사로써 교회에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약 240명의 신학생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중 여학생이 약 80명으로 증가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학교는 일반대학(4년제)을 졸업한 사람을 받아 3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 동양최

고 수준에 달하는 신학교이기는 합니다 매년 졸업생은 한사람도 빠짐 없이 다 교회의 목회자로 봉사하게 됩니다 다음에 교수진과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현재 15명의 교수와 약10명의 강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15명의 교수중에는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가 7명이나 있으며 선교사는 6명이나 됩니다 시설에 있어서는 웅대한 본관 750평과 마포삼열 선교사 기념관인 도서관 및 체플(415평)과 414평의 남자 기숙사와 교수 주택 3동이 있으며 현재 여학생 기숙사 약 250평의 현대식 건물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들이 뒤로 용마산 줄기를 배경으로 하여 앞으로는 유유히 흐르는 한강과 광망하게 퍼져있는 넓은 들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 귀 총회에서 파송한 이해춘 군이 여기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점차 해외로 진출해 나가는 국운과 더불어 한국교회와 신학자들이 세계무대에 진출해 갈 수 있도록 최고도의 실력 있는 신학교육을 베푸는 동시에 구미 각국교회와 전력을 같이하여 아세아의선교를 전담할 수있는 아세아 선교의 본부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있습니다 —계속— (본교의 주소=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장동 353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학대학 전화 52-7855)

열린 문

요한 계시록 3장 7~13절

(서남지방 주재 선교사) 대 비 수 목사

오늘 간단하게 요한 계시록 3장7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고저 합니다. 제가 오늘 일곱교회를 특별히 택하여 말씀 드리고저하는 이유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그 형편이 비슷하다고 생각 합니다. 예를들면 빌라델비아교회는 충성스러운 교회였습니다. 제가 믿기에는 제일 대한 기독교 교회도 역시 충성스러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에 보낸 편지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신 말씀이 들어있는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내버리었고 버가모 교회는 거짓 스승이 있었고 또 사미교회는 정신적으로 죽은 교회요 두아디라 교회는 도덕이 몰락하였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만은 그렇지 않았읍니다. 그들에게는 큰 죄는 없었으며 특별히 나쁜일을 하지 않았읍니다. 오히려 8절말씀을 읽어보면「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 하였도다」 또 10절말씀은「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기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지켜 별로 큰 죄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믿기에는 우리 제일 대한 기독교 교회도 그와 같다고 생각 합니다. 아마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대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지켜 큰 실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 충성스러운 교회이었지만 완전무결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교인들은 특별히 나쁜것을 행하지 아니 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특별히 좋은 일도 하지 아니한것 같습니다. 그들은 충성스럽기는 하였지만 앞으로 전진하지는 못하였을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한 기회를 주어서 그들을 격려 하였읍니다. 8절 말씀을 읽어 보면「볼지어다 내가 네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며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열린 문」이라는 말씀에 세가지 점을 주목하여 봅시다. 첫째로 이 열린 문은「기회의 문」이었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엇이 기회이었읍니까? 한가지는 이교회는 놓여있는 위치가 매우 좋았읍니다. 빌라델비아시는 아세아에있는 제일좋은 로마국도 즉「하이외이」에 놓여 있었읍니다. 그 도시는 미시아 리디아 그리고 프리지아 이 세나라의 국경에 놓여 있었읍니다. 그도시는 다른 아세아로 가는 문턱이었읍니다. 그러므로 이 빌라델비아의 위치는「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에 참으로 편리하였읍니다. 또한 제일세기에 크리스찬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각국을 여행하는데 자유스러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대한 로마국통치하의 평화로말미암아 모든 나라가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유로 여행할 수 가있었읍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헬라말이 보통 사용어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말의 곤란이 없었읍니다. 또 그들은 로마의 좋은「하이외이」를 이용할 수 가있었읍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 지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미신을 내버리고 진리를 찾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것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일 뿐만아니라 그 지역사회를 봉사하는 큰기회의 문이 열려 있었읍니다. 제가 확신하기는 제일대한기독교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와같이 같은 기회의 문이 열려져있다고 믿읍니다. 우리의 기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우리도 빌라델비아와 같이 대단히 편리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서 살고있읍니다. 그들 대부분은 신자들이아닙니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캐나다에 있는 크리스찬입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일본에 살고있는 크리스찬들의 기회입니다. 이것

이 바로 우리에게 열린기회의 문입니다. 이 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열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열린 문에들어가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은 이문에 들어갈 사람이 없읍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이것을 다 잘 아실것 압니다. 그러나 우리교회의 열린기회는 이것뿐만 아닙니다. 다른 기회가 많이 있읍니다. 예를들면 외국에서 생활함으로써 교생하는 사람들에게나 또 사업에는 큰 성공을 하였지만은 정신적으로

공허를 느끼고있는 사람들에게나 또 조국은 있으나 한번도 조국땅을 밟아보지 못하며 생애의 목적을 찾지 못하는 젊은 청년들에게나 다 일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며 봉사할 기회의 문이 열려져 있읍니다. 또 하나는 일본에서 특별히 살고있는 우리들에게는 일본사람들과 우리 한국사람들과 화목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힘을 기릴 기회가 있읍니다. 여러분들은 이것보다 많은 기회를 잘 아십니까. 중요한 점은 예수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교회에 넓은문을 열어주신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제일대한기독교교회에게도 넓은 문을 열어주신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진해서 그 열린 문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냐하고 그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느냐에 달려있읍니다. —계속—

) 그 당시 에베소서의 독자들은 세례에대한 지식이 명백하지 못했는것 같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골로새서2:12과 함께 생각 해야 하겠다. 왜 그런고하면 골로새서는 로마서 6장에있는 바울의 세례에관한 해석을 그 기초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골2:12절은「리스도께서 죽은후에 부활하시었다」고 믿는 신도들의 신앙고백문에 입각한것이다. 이와같은 해결의 목적은 우리 신도가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건에 참여하고 있는것을 인식 시키려는데 있다. 그러므로 신앙—사크라멘트(성례전)—개인실존의 발로의 사상이 밀접하게 결합되고 있다. ⑤ 이제 우리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의 말씀가운데 로마서 6장의 표현이 해결되고 있는것을 알수있다. 바울은「우리가 세례를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죽었다.(롬6:3-4)」고 말하고있다. 그러기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골로새서는 (2:12) 신도의부활을 그리스도와함께 장사한바와 같은 시충형으로말하고 있다.「우리들은 부활했다」고한 과거의 부활로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한것을 더 나가서「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받았다」고 말하고있다.「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함을 미래적으로 보는것과 현재적으로 보는 편이었다. 그러나 현재적인 영생으로 해석하는것이 더욱 타당성이 있다. 신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그의 부활로 같이살았다. 그러나 또 우리는 본질의 말씀이 영지주의의 속죄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수있다. 디모데후서 저자는 (딤후2:18) 그릇된 가르침을 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은「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 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지주의의 속에 들어가 있는가 그렇지않으면 희망있는 정신화한것에 있는가등의 질문이 제시 되고있다. ▶계 속◀

信徒를 위한 「에베소」 書研究

⑨ 尹 宗 銀(西宮教会牧師)

1—3 까지에는 인간의과국에 관하여 취급하였는데 4절 이하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사역을 말하고 있다. 그것을 대조하기위하여 원문정경에는 4 절에「그러나」의 접속사가있다. 이 어법은 에베소서 처음으로 사용된 위대한말이다. 하나님은 공중에 풍성하다. 인간의구원은 하나님의공중에서 시작된다. 공중은 자비 라고도 번역할수있다. 그러면 공중과사랑은 어떤 차이가있는가. 사랑은 가장 근본적인 마음상태이고 공중은 그 사랑의구체적인 사실에대한 활동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사랑을 위하여 우리가 전에 허물로 죽었을때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져오는 생명을 허락하셨다. 여기에는 초대 신도들의 신앙고백문이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 고하였다. 여기에 주의할것은 함께라는 접두어 이다. 골2:12—13과 롬 6장에서 세례에대한 해석이 있는것을볼수있다. 우리가 신앙을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사건에 참여하게된다. 그러므로 신앙과성례전이 나의실존을 폭로한다는 사상결합을 주장하고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수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자비하심으로서 그의은혜가 얼마나 지극히 풍성한것을 오는 여러세대에 나타내려는 것이다. D 그리스도의직무 2:4—10 ④ 4—5절에서 대응되고있는「공중」「사랑」「은혜」등은 동의를 가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안에서 실증된 은혜의행위라고 하겠다. 4절 맨 첫머리에「그러나」의 접속사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3절끝에「……있더니」로 그뜻을 나타내고있다. 「그러나」의 접속사는1—3절까지의 그리스도가 없는자의 생활의 특징을 말한후 이제는 그와반대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본서의 저자는 여기서 그리스도교 신도들의 윤리적 도덕적체질을 론하려는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행위로서의 구원의행위를 말하려고 한것이다. 「공중에 풍성한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인하여」함은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것을 명지하고있다. (요3:16

在日大韓基督教宣教60周年を迎えて

(2)

標語

キリストに従ってこの世へ

趣旨、三大目標、実践目標

1968年度 実践目標

われらは、3大目標実現のために、毎日祈りにおぼえて參與する。

- 1) 新年度特別集会 (1月1日～7日)
各教会と地方会が 宣教60周年記念集会を持つ。
- 2、記念礼拝 (1月7日第一主日)
各教会にて 午前礼拝を 宣教60周年記念礼拝として守り、標語と3大目標に従って 説教をする。
- 3、宣教音楽公演会
時日、三月初旬、場所 関西地方
韓国ソウル延世大学合唱団と 関西学院大学グリークラブの 合同公演
- 4、特別修養会
時日・4月中旬～5月初旬 場所・各地方会別 (全信徒を対象)
講師・韓国と日本国内の指導者
- 5、地方宣教大会
時日 5月下旬～6月下旬
地域社会と 同胞を中心として 宣教目標が、地域社会に 理解されるように大会を持つ。
- 6、教役者及び、各機関指導者研修会
時日・7 8月夏期間

10日間

講師・世界基督教協議会指導者、宣教のための体質改善及び 共同研究

- 7、記念大式典
時日・10月定期総会時内外 来賓 50名を招請する。
★ 総会各局各団体及び 各地方会の各機関は 年度行事を、宣教60周年 記念行事要覧に従って、活動方針を立て、統一運動を展開する。

2) 記念事業

- 1、記念教会堂建築
関東地方会…品川教会
中部地方会…桑名伝道所
関西地方会…大阪教会
九條伝道所
西南地方会…熊本教会
- ★ 日本国内 教会は、教会建設に、協力すると同時に、カナダ長老教会にも 教会建築のための援助を要請する。
- 2、在日大韓基督教会館 (K C C)を設置する
- 3、学生センターを設置し 韓国人、カナダ人の各指導者を一名置く。
- 4、特殊学園 (夜間学校を含む)を設置する。
- 5、幼稚園 (保育園)を設置し、これを積極的に推進する。

6、養老院を設置する。

7、共同墓地を設置する。

- 8、開拓伝道の ために、準備研究し、その 対策を確立する。
各地方会と 教会は、開拓伝道を 促進し、同胞の居住状態と 動向等を 実地調査すると共に、地域社会と 同胞の基本的諸問題を 検討対策する。

9、文書伝道を強化する。

- A、文書出版、伝道紙 (韓国語、日本語、英語版)の作成、図書出版社の協力によって各地に 散在する同胞に対して、伝道紙、新聞等を、定期的に 配布する。

- B、平信徒運動を 啓蒙強化し、宣教、教育、奉仕、其の他に 関する指針書を作成する
- C、聖書研究、基督教 通信講座を通して 社会參與を促進する。

10、韓国とカナダの短期宣教師派遣を要請する。

- 11、外国にわれらの宣教師を派遣する運動をおこし、外地宣教局を増設する。そのために宣教地の調査、人物養成、財政確立の対策を立て、具体化していく。

5、啓示の段階

啓示には、全ての宗教や哲学にも含む普遍的啓示と、それを受け継ぎ、予言者的方法で批判しつつ最後の啓示に、橋渡しする準備的啓示と、実存的存在と本質的存在とが結合し、イエスがキリストになったという最後の啓示とがあるとする。しかも、これすら絶対的なものの指示叙述だという。この事から人の達する知識は全て絶対的に相対的なものと言う。では唯一絶対的なものとは何か？それはイエスが神への犠牲に於て示したあの愛であり、これが相対主義と絶対主義とを克服したとする。キリストが、相対・絶対主義のジレンマを愛によって克服したと同様に人間もそうすべきであると考えているのである。

6、啓示の内容

彼は、神を「存在それ自体、絶対者、等の象徴的なものでしか語り得ぬ故、神をいかに呼ぼうと象徴的であるべきだとして神話と象徴の重要性を強調している。それらを解釈つまり非神話化する必要があるという。ここで、ブルトマンとの関係を見ると、ブルトマンは、ブーバー的「我・汝」という。人格的出会いに於て実存的に神と人間関係を考え

そこでの人間の実存的自己理解として実信を理解として使信を理解しようとし、神話を排する意味を含むが、テューリッヒの場合、后期シェリング哲学から来ているもので存在の基底と実存在主義との統一を目ざす所の非同一性を超えた同一性という神秘的な存在論から理解せんとしており、神話の保持の意味をもつ、彼は象徴というものを、人間の理解の深みを開き、それにより他の実在次元を啓示し、究極の実在又は存在それ自体を指し示すものとしている。象徴とはその力に参与しており自らと異なる他のものをさす標識と区別している。彼によると、神学の対象とは、神と人との特別な出会いが表現されている所の神ではない象徴であるという。これを解釈、説明し、最後に神学が新教の原理の光で、それを批評し、象徴が媒介の制約を超えて、それが指し示すものの位置について、カトリックの様に聖礼典自らが究極の位置を求めようとしていないか吟味すべきであるとする。これは神が直接、人に語ったり、御言に於ても御自身を啓示しておられないということになってる。(続く)

声

沸騰点

プエブロ号事件、北スバイ襲来事件等で、世情沸然としている。ベトナム解放戦線の一連から見て、共産攻勢はスバイ1人の決死行でなく世界の共産圏の決死攻勢の様相を見る。日頃鳴りを静めていた世論も蜂の巣をつついた様な騒然さである。こうした時にこそ政治が力を見せるべきで、世論は結論を出し得ない。平和が願望である。それを越えて38度線の撤去が切願である。沸騰点で安全弁が鳴るそのままにして置くと破裂する。平和への沸騰点より38度線の沸騰点が高くなった時そちらの安全弁が破裂するかも知らない。

Y・C

★ ★ ★

テューリッヒの神学思想 < 2 >

金承俊 강도사

4、占有(とりつかれること)と奇蹟、テューリッヒは、神の恩寵による占有と、新約聖書や、今日の精神分裂症で見る悪魔的占有とを対比させ恩寵が、後者の占有に打ち勝つという、そしてそれは危機又は悦惚に於て、人間を把えるその時に、奇蹟が起るというこの奇蹟に於て、究極的な実在そのものが、人間精神に關って来るのである。その時、驚くべき、震感させるような、しかも存在の神秘を、指し示す事件が起る。それでいて人間の存在構造を、破壊しないで、保持し高める。この事件には、存在の神秘を指し

示す事件という客観面と、悦惚経験によって、その事件を受けるといふ、主観面とがあるという、更に、この主観面には、否定的側面と、肯定的側面とが、あるという、それは、「非存在の衝撃」と「啓示の悦惚」とである。人は、存在であり乍ら、それから離され、非存在に脅かされているそして、突然、非存在、つまり、無への消滅の可能性に直面する罪とは、神からの分離であり、これが、非存在の脅かしとなるのだという。それに対して人は、自らを、主張肯定し、自らのうちに存在の力(神)の臨在を確認し、かく

して神を確言する。自己を飲まんと脅かす無意味を信仰の行為に於て自らのうちに取り入れる。この様な信仰を「絶対的信仰。だとして、これこそが、その深き溝を克服するのだという。次に啓示の悦惚とは、彼の靈感論である。悦惚のない機械的なものは悪魔的だとし、靈感とは、書自体でなく悦惚と啓示の「今、こゝに、の経験だという。この様な経験(存在の力によって把えられているという事)の中でこそ、信仰の行為により自らが神に受けられていることを、受容しうる。これが啓示であり、救済だとする。

元 点 に 帰 れ

ヨハネ 21:1~14

1. 始めの出発精神に帰ることが元点に帰ることである。エペソ教会は良い教会であった。彼らの労苦、忍耐やわざは神の認める程立派であったが、いつのまにか始めの愛がさめてきたので、ヨハネは彼らにその始めの愛のわざを行うようにと勧めた。(黙2:1~5)聖霊降臨後の初代教会の信徒は、自分の所有物をみなもちよってお互いの必要に応じて分配していたがそのいっ心共同の生活の美しい姿(行2:43~46、4:32~36)は消えてギリシャ語を使うユダヤ人とヘブル語を使うユダヤ人との間にやめへの日々の配給物資に対する不平がでたのである。そこで弟子たちは物資の争いから祈りと伝道の使命に支障をきたしたので(行6:1~7)信仰のあつた兄弟七人を選んでこの配給のことを任せ、弟子たちは初めに与えられた使命である伝道のわざに励んだのである。(マルコ1:14~20)

2. 主イエスは祝福を受ける為に連れてきた幼な子を前にして弟子たちに対し「この幼な子のように自分を低くする者でなければ、天国に入れない」と言われた。(マタイ18:1~4)人間は成長の過程でのあやまちを捨てて、その出発点である幼時の純真、素直に戻る事が大切である。(ヨハネ3:1~10)二千年も昔の書である聖書もその歴史の古さが問題ではなく、この書は信仰の糧として毎日読むことによって私たちの生命を養っている。(ヨハネ4:4、黙21:6~7)ヨハネも古くから教えてきた戒めを新しい戒めとして教えた。之はキリストの光に照

して古いものが新しい息を入れるからである。(1ヨハネ2:7~8)

3. 主は復活後第三回目にはペテロらの漁をするガリラヤ湖に行って、彼らにとれなかった魚が多くとれるように舟の右に網をおろすように命じた。そこで多くの魚をとることが出来た。ペテロらはイエスの裁判、十字架の死その他ユダヤ人の迫害等の為に失意に陥って一時ガリラヤに帰って魚をしたと見える。主はこのペテロら弟子たちに対して

始めて呼んだあのガリラヤ湖について行って再び三年前の元点に帰って素直(ルカ5:1~11)に主に従って伝道のわざに励むように説かれた。(ヨハネ21:15~19)これに対してペテロもこのガリラヤ湖には始めて召命を受けたのを始めとして、五千人にパン二つと魚五ひきで満腹させた等の数々の思い出があったのであろう。(ヨハネ6:1~14)彼は遂に殉教の死を決して再び伝道戦線に立ったのである。

(金元治牧師)

韓 国 人 と 交 わ っ て (3)

廣 島 節 子

(大阪女学院教師)

私と同世代の教会青年達との交わりの中で感じたことを卒直に述べてみたいと思います。私が接した人は限られています。又、交わりの深さがどの程度か測りかねます。ですから、私の見方は皮相的な「わかっちゃいない」ものかもしれません。が、決して観察者ではなく「その中であって」考えようと務めたことはおわかり願いたいのです。去年夏、全国修養会に初めて参加しました。立場が異なることは十分承知し、その相異隔りを越えて理解出来ると信じ、お客様でなく一青年会員として努力したつもりでしたが、期間中、みんなの中に素直に溶け込めない自分を見出しました。「どうして外側に立って、批判的な眼を向けているのだろうか。」自分の中の思掛けない自己の存在

にすっかり考えこんでしまいました。何が心の中に垣根をつくったのでしょうか。韓国人と日本人だからでしょうか。扱う問題—法的地位、民団、教会等—が私には遠いものだからでしょうか。そうではありません。生活のルー—消燈時間、門限等—を守らせようと気苦労している運営委員の姿、聖研、分団、全体討議の不参加者、修養会に対する表面的な不平不満は私にとって予期せぬ考えられないことでした。修養会までの中央委員の方々の労苦を少なからず知っている私には参加者一人一人がもっと「参与」する気持を持つべきだと一種の腹立たしさと失望感の混じった感情が心を支配してしまったのです。

あなたがたの中で耳にしたことですが、修養会是全国青

年が一同に会する場であって社会的な要素があり、私の修養会に対するイメージとは異なった面を持っているのです。しかし、私は思うのです。全国の青年が集まる唯一の機会ならば、もっと「真の交わり」を深めるものがあった方がいいのではないかと。真摯な態度がみられなかったと断定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個人的には尊敬すべき兄弟姉妹に出会いました。しかしながら全体的には、受身の態度で、自己を投げ出して、生き方、信仰なりを問い、共に考えろといった真剣さと気迫が私には感じられなかったのです。

つかみどころのない社会という怪物に吞み込まれてしまわない様に、自分の持場を守りたいと必死に努力しても、毎日の生活の中に埋没して、自分1人がみじめで可哀そうに思い、つい自分をみる眼が甘くなってしまう私です。が仲間との対話の中で自己に厳しく立ち向かい、新たな自己を見出すことが出来るのです。私達1人1人は異なった場において、人生の長い旅路を辿っているのですが、時には、苦しさ、悲しさに打ちのめされ、疲れ切って1歩も進めなくなります。その時に自分のすぐ側に同じ様に重荷を負いながらも耐えて歩んでいる仲間の姿に、新たな勇気が湧き、再び歩き始めるのです。生きる力をお互いに與え合うものが「真の交わり」です。浅い次元でなく、深みでお互いを知ることとは、たやすいことではなく、むしろ、苦痛を伴うでしょう。でもその点に到達した時には、交わりの喜びも大きく、そして、お互いの悩み苦しみを分かち合っ、共に励ましながら1歩ずつ前進出来るのです。あなたがたの交わりが、仲間意識で強くされているかの様にみえて、1人1人は真の仲間がなく孤立している様に私には思えるのです。

ところで、いつも討論となると出てくる「子」の問題を初めとして発言される意見には外への要求、動きに持ってゆられるのですが、それと同じだけ内面に向かうものがないのです。例えば、説教の「子」使用が、日本語と韓国語の割合といった方法論や韓国人から民族の言葉を大切にしなければといった民族意識からの意見は聴きました。私はその時に「韓国人であるあなた自身がどうして学ぼうとしないのですか。」と聞きたいのです。私に與えられたこの交わりを深める為に私は韓国

語が理解出来るようになりたいのです。流行歌をうたっても、内容を知りたくて辞書を片手に悪戦苦闘しますのに、福音をきき、찬송가を歌うあなたがどうして「子」を急いで習得しないのですか。真に韓国人である自己を受容するならば、自己の立っている位置を知る際に、言葉は獲得しなければならない第1のものでしょう。

運動として盛りあげてゆくには集団の声として要求し、訴えてゆ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しかし集団を構成している各個人がどれだけ内面からその声を発しているかが大切なのではありませんか。各自が1つ1つの問題に対して自分と対決させて考え、しっかり自分の中に根を張らせるのです。既存の状態を変える為には、まず自分自身を新しく創造しなければ、その試みは一時的なものに終わるでしょう。それぞれの持場で力の限り自分と戦ってみることは、むなしなことでしょうか。

最後に、私自身がそうありたいと願っていることなのですが、あなたがた1人1人がよき教育者になってほしいのです。あなたがたの後から来るより若い人達を導き育てて下さい。私の言う教育者というのは教育事業に携わることではありません。先を歩いている者として、続いて来る者の良き先輩であってほしいのです。あなたがた1人1人が人生の学校で学んだ貴重なものを持っていらっしゃるそれを惜しみなく次の世代に譲り、教えてほしいのです。育てることの中で、私達は積極的な生き方が必要とされ、私達自身も大きく成長してゆくのです。

『日本人であってキリスト者である私は、どんな位置に立たされ、「世の光」「地の塩」として何をなすべきなのか。』と問いつづけ、私の場で私に出来る事を誠実にやってゆ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同じ様に、あなたがたは「在日韓国人キリスト者である」ことと絶えず真剣に取組み、自分の場をしっかりと見つめて、全ての人が良き同労者となり、真の交わりで互に支え合い、前進して下さい。

拙文をかきながら、私はあなたがたの立場を少しもわかっていないし、或いは、わかろうとしていない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真の交わりに向っている様で、遠のいているのかもしれませんが、垣根越しに見ている私かもしれません。交わりの中で坐折し、又、気を取り直して立ちあがろうとする私をも、主にある者として、あなたがたの交わりに加えていただけたらと願いながら、今後、皆様からの御批判、御指導を賜りたいと思います。

一度お試めし
ください

私たちは若いのです。私たちは仕事に利益のみを追求して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つねに「印刷製品」を造りあげ、その完成品が、みなさまによるこんでいたくことと私たちの仕事の追求なのです。一度試みてみて下さい。ハッラツとした現代感覚を私たちの若さが「印刷製品」に生かします。

韓国文・その他各種印刷

K・C 僑 文 社

大阪市西成区梅通五ノ二
電話 六二一四六六九番営業担当 高 仁 鳳
印刷担当 昌 山 政 夫